

## 〈최척전〉에 나타난 상대적 화이관\*

신 태 수\*\*

### 차 례

- |                        |                     |
|------------------------|---------------------|
| 1. 서론                  | 3. 대외인식에 담긴 상대적 화이관 |
| 2. 외국인형상에 드러난 대외인식의 양상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척전>(1621)의 외국인에 대한 묘사를 분석하여 외국인 형상에 담긴 대외인식과 그것에 담긴 작가의식을 밝힌 글이다. 외국인형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다루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다룸으로써 이 작품의 대외인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사건 전개에 따라 등장하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나누고 그 행위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당시의 화이(華夷)관념에 따라 華에 해당하는 명(明), 夷에 해당하는 후금(後金)과 왜(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과 교수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모화(慕華)의식에 치우치지 않은 대명인식, 둘째, 야만으로만 폄하하지 않는 대후금인식, 셋째, 불공대천의 원수로만 보지 않는 대왜(對倭)인식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외인식은 작가 조위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인 국제감과 정치인식에 의한 상대적 화이관이 반영된 것임을 밝혔다.

주제어 : 외국인형상, 대외인식, 화이관념, 명, 후금, 왜, 재조지은, 모화의식, 조위한, <최척전>

## 1. 서론

趙緯韓(1567-1649)의 <崔陟傳>(1621)은 전대미문의 임진왜란과 잇따른 대후금전쟁으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철저히 파괴되는 비참한 현실과 대전란의 와중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적이었던 왜와 후금에 대한 묘사에서 적개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적대국 사람들을 우호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에 구원병을 보내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명나라와 주인공들을 도와준 명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와 보은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척전』은 사실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작품에 드러난 외국인에 대한 묘사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작품의 외국인에 대한 묘사를 분석하여 외국인 형상에 담긴 대외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척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해외편력과 외국인물들이 지닌 특징에 대해 ‘인간에’<sup>1)</sup>, ‘전근대 동아시아공동체의 싹’<sup>2)</sup>, ‘초국성(超國性)’<sup>3)</sup>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sup>4)</sup>도 전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작품에 구현된 동아시아연대의 토대가 왕조, 즉 국가에 소속감을 두지 않는 ‘탈국가(脫國家)’적 면모에 있으며, 그것은 국가의 안위보다 개인과 가정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당대인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 방식<sup>5)</sup>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주로 외국인형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sup>6)</sup> 외국인의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함께 다루어야 비로소 이 작품의 대외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부정적인 면도 포함하여 대외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구명할 때 더한층 균형 잡힌 작품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사건 전개에 따라 등장하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나누고 그 행위를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화이(華夷)관념에 따라 華에 해당하는 명(明), 夷에 해당하는 후금(後金)과 왜(倭)에 대한

- 1)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75-100쪽.
- 2)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쪽.
- 3)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9-224쪽.
- 4) 신선희, 『전란이 낳은 이방인의 삶-최척전』, 『장안논총』 33, 장안대학교, 2012, 1553-1572쪽;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165-192쪽; 정규식, 『최척전에 형상화된 주변인물의 특징과 작가 의식』, 『어문론총』 64 한국문학언어학회, 157-186쪽.
- 5) 최빛나라, 『최척전의 탈국가적 면모와 그 의미』,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7, 55-79쪽.
- 6) 정규식은 돈우, 여유문, 주우, 늙은 오랑캐, 진위경 등이 기존의 견해와 달리 보편적이고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정규식, 앞의 논문). 후속 연구자에 의해 일부 주장이 부정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논의가 동아시아적 차원으로 경도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데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善行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이들 논의와는 달리 본고는 제삼의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식을 각각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인식에는 작가 조위한의 현실적인 국제감각과 정치인식에 의한 상대적 화이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외국인형상에 드러난 대외인식의 양상

<최척전>에서 남녀주인공들은 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을 떠돌아다니는 와중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난다. 남녀주인공의 국내외 편력의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면서 작중에 등장하는 외국인을 국가별로 묶고, 그들의 행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인물	행위
명	여유문	최척을 중국으로 데려가 보살펴준다.
	주우	세상을 등지려는 최척을 설득하여 함께 장사를 하며 주유한다. 왜인에게서 옥영을 구해내고자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최척 부부가 항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준다.
	두홍	최척의 사연을 듣고 의기를 느껴 적극 도우려한다.
	홍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조선사람과 결혼한다. 옥영을 따라 배를 타고 사지를 넘어 조선에 도착하여 결국 아버지와 상봉한다.
	장수	후금군을 알보다가 패하여 전군이 몰살당한다.
	교유적	패잔병과 함께 조선군중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후금군에게로 압송된다.
	진위경	최척의 병이 위급한 것을 보고 치료하여 살려준다.
	해랑적	옥영 일행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구타하고 위협한 후 배를 빼앗아간다.
후금	누르하치	성격이 곧고 관대한 지도자이며, 명군은 전멸시키지만 조선군은 건드리지 않는다.
	늙은 호인	최척과 몽석 부자를 몰래 탈출시켜준다.
왜	왜적들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최척 일가를 포함한 마을사람들의 피난처까지 습격하여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끌고 간다.
	돈우	옥영을 자식처럼 대하다가 대가 없이 놓아줄 뿐 아니라 재물까지 주고 축복하며 보낸다.
국적 불명	뱃사람들	최척과 옥영의 기이한 재회를 축하하면서 금과 비단 등을 선물로 준다.

이 외국인들은 국적에 따라 왜인, 후금인, 명인, 국적불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유문·주우·두홍·홍도·장수·교유격·진위경·해랑적은 명인이고, 누르하치와 늑은 호인은 후금인이며, 왜적과 돈우는 왜인, 그리고 외국 뱃사람들은 국적불명이다. 당시의 화이관념(華夷觀念)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는 華에 해당하는 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夷, 즉 오랑캐에 해당하는 후금과 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 1) 재조지은과 모화의식에 치우치지 않은 대명인식

1592년 4월 13일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삼시만에 조선을 멸망의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조선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왜적이 물밀듯 북상하자 국왕과 관료들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주하여 의주로 향했고 국왕 선조는 명나라로의 망명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그동안의 학정과 토색에 고통받던 백성들의 쌓였던 원성과 왜적 방어에 속수무책인 정권의 무능에 민심이 폭발하여 임금의 피난길을 방해하는가 하면 왕자들을 사로잡아 왜적에게 넘기는 사태까지도 발생하였다. 왜적의 절대적인 우세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민심이반에 놀란 선조와 지배층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명군의 참전과 전세역전의 전기를 마련한 1593년 1월 9일 평양성 전투의 승리는 멸망했던 국가가 다시 소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여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식을 품으면서 재조지은(再造之恩)의 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명에 대한 모화의식(慕華意識)도 강화되었다.<sup>7)</sup>

조선 지배층은 전쟁기간 내내 명나라에 절대 의존적이었으며 자신들의 무능을 덮는 수단으로도 재조지은을 강조하였다. “여염의 백성들이 명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장수인지 병졸인지 모르더라도

7) 재조지은 관념의 형성에 관하여는 한명기의 논의(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67-74쪽.)를 참조하였다.

모두를 외경한다.”<sup>8)</sup>고 한 언급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명나라 사람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이 명나라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 방자(房子)가 되거나 식량을 얻어 아사를 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군 진영에 의탁하였고, 명군의 철수와 함께 명나라로 따라 들어간 조선인이 대단히 많았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sup>9)</sup>

<최척전>에서 최척 역시 가족들이 왜적에게 유린당하여 온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게 되자 절망한 상황에서 명나라 장수에게 의지할 곳 없음을 호소하면서 명나라로 데려가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이에 여유문은 최척을 막하로 삼은 후 중국으로 데려가 자신의 집에서 보살펴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척의 외로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누이동생과의 결혼까지도 주선한다. 이처럼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척은 전란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타인의 도움으로 인생의 극적 전환을 경험한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중국으로의 망명(명-여유문)이고, 둘째, 청성산행을 포기하고 무역선 타기(명-주우), 셋째, 홍도와의 재회와 항주 정착(명-주우), 넷째, 포로수용소 탈출(후금-늙은 호인), 다섯째, 응급치료로 생명 소생(명-진위경) 등이다. 그 중에서 후금의 포로수용소 탈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명나라 사람의 도움에 의한 것이다. 전쟁 발발로 인한 가족이산에서부터 고향으로의 귀환까지 최척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은 명나라 땅에서, 명나라 사람의 도움으로 인생의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명나라 사람과 명나라에 대한

8) 李好閔, 『山海關三次呈文』, 『五峰先生集』 권14 庚子, 위의 책, 74-75쪽 재인용. 閔 闢小民 遇有天兵樣子 不知是官是巡 一體畏敬.

9) 임란 당시 조선인의 명군 진영 투탁과 명나라로의 유출에 관하여는 한명기, 앞의 책, 145-150쪽을 참조할 수 있다.

재조지은과 모화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명나라 사람들의 형상화된 면면을 살펴보면 망명 이후 중국에서 최척은 비록 여유문과 주우를 비롯한 명나라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했으며, 조선으로 귀환하여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 도움을 받은 진위경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척이 명나라 사람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의 도움으로 최척은 여유문의 막하로 있긴 했지만 그와 같은 상에서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잤으며, 중국으로 가서도 여유문의 집에 의탁하고 있었지만 그와는 형제의 의를 맺고 지냈다. 나아가 여유문이 여동생을 최척에게 시집보내려 할 때 최척은 부인과 가족에 대한 도의를 내세워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것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린 「홍도」에서 몽현의 신부감을 구할 때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꺼려 딸을 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나타나는 당시 일반적인 명나라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우월의식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작가 조위한이 의도적으로 최척의 위상을 중국인과 대등하게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주우와도 최척은 서로 지기로 인정하며 교류했으며, 주우는 최척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우한다.

최척의 자를 부르며 말했다. 백승(伯昇)!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들 장생불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략) 그대(子)는 모름지기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오월 지방으로 다니며 비단이나 차를 팔면서 남은 생을 즐겨 봅시다. 그 또한 달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sup>10)</sup>

10) 字陟而謂曰 伯升! 人生斯世, 孰不欲長生而久視? (중략) 子須從我, 而歸乎扁舟, 適吳越販繪賣茶, 以娛余年, 不亦達人之事乎?(원문은 간호운, 『先賢遺音』, 이회, 2003, 610쪽을 따랐고, 인용한 번역문은 필자가 운문한 것임.)

주우는 최척의 자(字)를 호칭으로 사용하고, 또 ‘子’(그대)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존중의 자세를 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위경의 경우는 오히려 최척이 우위적 입장에서 대화를 진행하며, 게다가 조선인이 명나라 사람을 돌봐주는 시혜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위상의 역전현상을 보여준다.

“괴이하군요! 괴이해! 내가 항주에서 당신(你)의 집과 이웃하여서 살았지요. 당신(爾) 부인은 1611년 9월에 병으로 사망하셨소. 홀로 남은 흥도는 이모부인 오봉일 집에서 길렀는데, 내가 둘째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지요. 그런데 뜻밖에 오늘 이곳에서 당신(爾)을 만나다니요.” 위경이 놀라 애통해하면서도 주저리주저리 떠들며, 기뻐하는 것을 오래도록 참지 못하다가 말했다. “아! 저는 대구에서 박씨 성을 가진 이의 집에서 의탁하고 있을 때, 한 노파에게 침술을 배워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이제 당신(子)의 말을 들으니 고향에 있는 것과 같아 저도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고 싶군요.”<sup>11)</sup>

이것은 사경을 헤매던 최척을 구해준 진위경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를 남원으로 데려온 후 최척과 진위경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최척은 명나라 사람이며 더구나 생명의 은인인 진위경을 ‘你-爾-爾’로 호칭하면서 평대하는 데 비해 진위경은 최척을 ‘子’로 호칭하며 존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가람문고본도 ‘爾-爾-爾’/‘子’로, 천리대본도 ‘爾-汝-汝’/‘君’으로 표현되어 있어 동일하다.<sup>12)</sup>

다른 한편으로, 명나라의 해적에 대한 묘사는 도리어 재조지은과 모화사상을 전도시켜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1) 위의 책, 580-581쪽.(원문은 621쪽)

12) 고려대본만 ‘君-君-君’/‘子’로 되어 있다.(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7, 442쪽.) 그러나 간호운은 이본비교를 통해서 선현유음본과 천리대본이 선본임을 밝혔다.(위의 책, 39-42쪽.)



잠시 후에 뱃사람들이 보였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내려왔다. 말소리와 옷차림새가 모두 조선이나 일본이 아니었다. 대략 중국사람(華人)과 흡사했다. 손에 병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흰 몽둥이로 마구 때리며 화물을 찾았다. 옥영이 중국말(華語)로 대답했다. “나는 중국사람(天朝人)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나왔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게 된 것이기에 본래부터 화물은 있지도 않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 울며 살기를 구하니 죽이지는 않고 다만 옥영이 타고 왔던 배를 빼앗아 자기들 배의 후미에 묶고 가버렸다.<sup>13)</sup>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옥영 일행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처참하게 무너지는 절망적 장면이다. 중국사람이 노략질을 일삼으며 오랑캐나 다름없는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고 있다. 문명을 대표하는 華人 중에도 무자비한 약탈과 폭력을 자행하는 야만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적을 하필이면 그 당시 흔히 바다에 출몰하던 왜구(倭寇)로 설정하지 않고 굳이 중국인으로 설정한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재조지은과 모화사상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명나라 사람들이 모두 문명인은 아니며 그들 중에도 야만이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 야만으로만 폄하하지 않는 대후금인식

1619년 기미년, 누르하치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조명연합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되어 대후금전쟁이 벌어진다. 명나라 항주에 우거하고 있던 최척은 교유격의 천총 오세영에 의해 서기로 발탁되어 종군한다. 그러나 명나라 군대는 누르하치군에게 몰살을 당하고 만다. 최척은 혼란을 틈타 조선 군중으로 숨어들어 홀로 죽음을 면하지만 후금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힌 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

13) 간호윤, 앞의 책, 588쪽.

후금은 본래 대대로 약탈을 일삼으며 북방을 위협해온 여진족이 세운 국가였다.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우선 명나라의 요동 지역을 침범하며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명나라와 조선을 압박하고 있었다. 훗날 후금은 중원을 점령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지만 <최척전>의 사건 당시, 여진족의 누르하치에 의해 발흥한 후금은 조선과 명나라에게는 전통적인 화이관념에 따라 북쪽의 야만적인 오랑캐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찮은 오랑캐 주장이 감히 썩썩매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항거하듯 하기에 왕의 군대가 쓸어버리려 가는 것이니 계란을 깨는 것과 똑같소.”<sup>14)</sup>

“오랑캐 우두머리의 소굴은 조선과 땅과는 겨우 4,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sup>15)</sup>

각각 최척과 옥영의 입을 통해서 누르하치로 대표되는 후금에 대해 야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그와 대조적인 인식도 드러낸다.

조선 병사들은 유혹하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 명도 살상하지 않았다. (중략) “오랑캐들은 성격이 솔직하고 가혹한 학정도 없지요. (중략) 누르하치는 나에게 80명의 날랜 군사를 주어서 조선병사들을 관압하여 도망하지 못하도록 방비하게 시켰다오.”<sup>16)</sup>

<최척전>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후금을 공격하는 명을 적대시하여 남김없이 살육하지만 조선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금으로 귀화한 조선인을 포용하고 포상한다. 성격이 곧으면서도 관대

---

14) 위의 책, 575쪽.

15) 위의 책, 582쪽.

16) 위의 책, 575-578쪽.

한 지도자의 모습<sup>17)</sup>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최척을 비롯한 조선인 포로들을 지키던 후금의 늙은 군인은 십여 년 전 조선에서 후금으로 귀화한 사람이었다. 본래 삭주의 토병이었는데 지방관의 가혹한 정사에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온 가족을 이끌고 오랑캐 땅으로 이주한 것이다. 조선에서 가혹한 학정을 견디다 못해 후금으로 망명한 삭주 토병의 입을 통해서 후금이 야만적인 오랑캐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혹한 학정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의 성격도 곧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조선보다 더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척 부자를 도와준 후금인 부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후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늙은 오랑캐가 자주 왕래하며 보고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은 듯하더니 가엾게 여기는 기색을 보였다. (중략)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내가 비록 누르하치에게 문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잔인하게 당신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소.” 다음날 말린 밥을 준비하여 주고는 그의 아들에게 셋길을 가르쳐주게 하여 보냈다.<sup>18)</sup>

후금의 늙은 군인은 최척 부자의 사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움의 손길을 펴서 최척 부자를 탈출시켜준다. 이러한 호인의 선행은 측은지심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후금인이 인간적 도리도 모르는 야만적인 오랑캐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7)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누르하치는 위세가 막강하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는 호탕한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다. 유몽인,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11, 727쪽.

18) 간호윤, 앞의 책, 577-578쪽.

## 3) 불공대천의 원수로만 보지 않는 대왜인식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남원성이 함락되면서 최척 일가의 행복은 산산이 깨어진다. 최척 일가는 지리산 연곡으로 피난하지만 피난처까지 왜적이 쳐들어와 약탈하는 바람에 철저히 유린을 당하고 만다.

이날, 왜적들은 연곡으로 쳐들어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중략) 연곡으로 들어가 보니 다만 시체가 쌓여 길에 가로놓여 있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중략) “적병이 산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재물을 약탈하였다네. 늙은이들을 잡아 베어 죽였으며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두 끌고 어제 겨우 섬강으로 물러나서 진을 쳤어.” (중략) “저는 어린 몽석을 업었는데 빨리 달리 수가 없어 적병이 칼로 찌르고는 갔습니다. (중략) 일어나서 섬강에 가서 보니 창에 찔려 상처를 입은 수십 명의 노약자들이 서로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중략) 고향마을의 담벼락은 무너지거나 기왓장은 깨져 있었다. 모두 불타버려 숨쉬는 것이라곤 없었으며, 해골만이 나뒹굴어 밭 디딜 땅조차 없었다.<sup>19)</sup>

최척 일가가 경험한 왜적들의 만행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왜적들은 무자비하게 살상과 약탈을 자행했다. 왜적들의 야만적 행위로 인해 최척 일가를 포함한 온 마을이 피로 물들었고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임란 당시 왜적들의 잔악함과 야만성이 적시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1592-1598)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인구가 1/3이나 줄어들었다. 전쟁 기간 동안 왜적의 약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근과 전염병까지 겹쳐 당시 백성들은 대단히 참혹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굶주린 나머지 인육을 먹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당시 병조판서로 있던 이덕형(1561-1613) 역시 부자형제간에 서로 잡아먹고, 백성들이 서로 도적질을 하거나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19) 위의 책, 560-561쪽.

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을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sup>20)</sup>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 중 조선의 상황은 대단히 비참했다. 부자형제끼리 서로 잡아먹는 생지옥 같은 비극은 바로 왜적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고, 따라서 궁극적인 원흉은 다름 아닌 왜적들이었다.

또한 왜적들의 만행으로 평화롭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단란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부모형제와 자식과 일가친척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앞의 인용문과 같이 처참한 비극을 당한 최적은 더 이상 살 뜻마저 잃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철저히 절망한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왜적들의 만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보여줄 뿐이며,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왜인은 그러한 적개심과 증오의 대상만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앞의 인용문에서처럼 왜적의 비인간적 만행으로 인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늙은 왜병 돈우의 경우 오히려 인간미를 지닌 존재로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여주인공 옥영은 왜병 돈우에 의해 포로가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왜병 돈우는 조선인 포로 옥영을 인간적으로 보살펴준다. 돈우는 본래 살생을 하지 않는, 불심이 돈독한 자로서 왜장 소서행장의 명령에 의해 부득이 종군하게 된 자였다.

돈우는 옥영이 재빠르고 재치 있는 것을 아꼈다. 오직 달아날까 걱정

20)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 최흥원(崔興源)이 아뢰기를, “끓주린 백성들이 요즘 들어 더욱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시체의 살점을 모두 베어 먹어버리므로 단지 백골(白骨)만 남아 성(城)밖에 쌓인 것이 성과 높이가 같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비단 죽은 사람의 살점만 먹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서로 잡아먹는데 포도군(捕盜軍)이 적어서 제대로 금지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이덕형이 아뢰기를, “부자 형제도 서로 잡아먹고 있으며 양주(楊州)의 백성은 서로 뭉쳐 도적이 되어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뒤에라야 서로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금지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중략)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지 4년 되었다오. 그의 단정하고 훌륭한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과 똑같이 대하여 침식을 함께 하여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가 부인인 줄은 지금까지 몰랐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보니 이는 천지의 귀신도 오히려 감동할 일이지요. 내가 비록 무디고 어리석기는 하지만 목석은 아닙니다. 어떻게 차마 이 여인을 팔아먹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 열 냇을 꺼내서 신의(驢儀)를 주면서 말했다.<sup>21)</sup>

전쟁에서 노획한 포로를 노예로 삼은 왜병 돈우는 의외로 조선인 노예 옥영을 자식처럼 선대하다가 무상으로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선뜻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전별금으로 선사하기까지 한다. 이 작품에 묘사된 왜병 돈우의 호의적 태도는 임진왜란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한 적이자 무자비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한 불공대천의 원수인 왜적에 대한 이미지와 관념적인 틀을 깨뜨리고 있다. 왜적의 비인간적 만행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묘사를 통해서 이 작품에 드러난 왜인에 대한 양가적 인식, 다시 말해서 불공대천의 원수로만 보지 않는 대외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이상에서 <최척전>의 외국인형상에서 드러나는 대외인식을 화이관념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된 임진왜란과 대후금전쟁 전후의 역사적 비극과 당시 사회에 일반적이었던 화이관념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물의 묘사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명나라, 후금, 왜에 대한 대외인식은 일반적 통념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의 화이관념에서 본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대외인식에는 華와 夷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야만스런 오랑캐인 왜적과 후금인 중에도 인간미를 간직한 돈우나 늙은 호

21) 간호윤, 앞의 책, 564; 571쪽.

인 같은 사람이 있고, 오랑캐의 두목인 누르하치는 강직하고 관대한 성품을 소유한 훌륭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준 나라이자 중화의 나라인 명나라와 최척 부부를 보살피준 명나라 사람에 대한 재조지은과 모화의식은 보이지 않고, 최척은 그들과 대등하거나 우월적인 위상에서 교류한다. 오히려 해적들이 약탈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문명국이라고 하는 명나라에도 야만이 뒤섞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화와 이가 칼로 자르듯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옥석이 서로 섞여 있듯이, 오랑캐 안에도 문명인과 같은 성정(性情)과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문명국 안에도 비인간적인 야만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화와 이에 대한 도식적인 구분과 관념적 사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작가 조위한이 현실 체험과 국제적 감각을 통해 얻은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대외인식에 담긴 상대적 화이관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은 조선인에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최척전>에도 묘사된 바와 같이 무자비한 살상과 약탈을 자행한 것이 사실이다. 왜는 조선인에게 본래부터 오랑캐로 치부되었고 임진왜란에서 왜적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는 그들이 천생 짐승 같은 오랑캐라는 관념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런데 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속속 귀환하고 그들의 체험담과 실기문학이 퍼지면서 왜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현실적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강항의 글<sup>22)</sup>에 잘 드러나 있다.

22) 姜沆, 『涉亂事迹』, 『看羊錄』(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해행총재 Ⅱ』, 민족문화추진

강항은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도중에 뜻밖의 일을 겪고 깜짝 놀란다. 왜인은 모두 한통속으로 금수같이 사람 죽이기만을 좋아하는 야만인으로만 여겼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처럼 선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선입관’<sup>23)</sup>이 깨지게 된 것이다. 강항은 왜인들의 호전적 민족성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위정자의 가혹한 법령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 백성들의 선량했던 품성이 기형화된 것이라는 분석적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강항은 왜인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지배층에게는 적개심을 품는 반면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품는다.<sup>24)</sup> 강항을 비롯한 포로체험자들은 왜인들에 대한 종래의 피상적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夷관념과 유사한 인식이 임진왜란에서 왜적 때문에 수난을 당했고 의병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주전론을 펼쳤던 지식인이자 조위한과 절친했던 또다른 인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회, 1984, 212쪽.) 이튿날에 또 한 바다를 건너서 이예주(伊豫州)의 장기(長崎)에 정박한 후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는데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넘어졌다. 작은 딸이 나이가 여섯 살이어서 제 힘으로 걷지 못하므로 아내와 처모(妻母)가 번갈아서 업었다. 업고서 내 하나를 건너다가 물 속에 쓰러지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언덕 위에 있던 한 왜인이 눈물을 흘리며 붙잡아 일으키고 말하기를, “아! 너무도 심하다. 대합(大閤)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어디다 쓰러는가? 어찌 천도가 없을소냐?” 하고, 급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서속밥과 차송늬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집 식구를 먹였다. 그제서야 귀와 눈이 들리고 보였으니, 왜노 가운데도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은 유달리 법령이 몰아넣은 것이다.

23) 유몽인은 『어우야담』에서 “왜인들은 성질이 급하며 죽이고 베는 것을 숭상해, 대저 눈만 흘기는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칼을 집는다.”고 왜인들의 호전적 습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당시 왜인에 대한 조선인의 일반적인 선입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유몽인, 앞의 책, 716쪽)

24) 임란왜란 시기 포로 실기문학에 나타난 대왜인식의 수정 양상에 대하여는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문학 연구』(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84-93쪽을 참조할 수 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원래부터 동포로 태어났다네.  
오랑캐가 윤리를 달리 한대도  
이 또한 교화시킬 수가 있다네.<sup>25)</sup>

사람은 모두 같은 바탕을 지녔기 때문에 오랑캐도 바르게 인도한다면 얼마든지 교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관념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난 상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 시의 작가 권필은 강항의 포로체험을 한나라 소무(蘇武)의 간양(看羊) 고사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다.

또한 후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후금의 풍속이 중국보다 훨씬 순박하고 인정이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항복은 우의정의 신분으로 명나라 사행(1598) 도중에 호지(胡地), 즉 후금의 전신인 건주여진에 대해 탐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토(本土)가 뭐 그림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부모와 처자가 모두 중원(中原)에 있는데, 어찌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마는, 호지(胡地)의 풍속이 중국보다 십분 순호(醇好)하여 부역(賦役)도 없고 도적(盜賊)도 없어 바깥 문을 닫지도 않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곤 하여 자기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양에 살면서 설새없이 일에 골몰하는 것과는 고락(苦樂)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차하게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여 도망쳐 돌아가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은 명나라 출신 후금인의 호지에 대한 진술은 <최척전>에 나오는 늙은 호인의 말과 매우 흡사하다.

25) 권필, 정민 역, 『석주집』, 태학사, 2009, 114쪽. 況乎人與人/ 元自同胞生/ 夷狄縱異倫/ 亦可就羈纆

26) 이항복, 임정기 역, 『국역 백사집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118쪽.

나 역시 삭주의 토병이었소. 부사(府使)의 학정이 심하여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랑캐 땅에 들어 온 지 이미 10년이 나 되었다오. 오랑캐들은 성격이 솔직하고 가혹한 학정도 없지요. 인생 살이가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데 무엇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고향에서 몸을 움크리고 살아야만 하겠소?<sup>27)</sup>

위의 두 인용문은 오랑캐인 후금의 풍속이 중화인 명나라나 조선보다 순박하여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항복은 조위한과 평소 서로 ‘농담의 천자와 태자’라고 부르면서 농담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위한이 이항복, 권필, 강항 등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최척전>에 나타나는 夷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이들 교유집단과의 정보교류와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와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재침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1607년 왜국과의 통상을 재개한 이래로 기미책을 통한 왜·후금과의 평화유지라는 현실적 국제문제가 당시 정치권의 현안이었던 점도 조위한을 비롯한 이들의 夷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임진왜란과 대후금전쟁을 거치면서 명나라로 대표되는 華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온 명나라 지원군 가운데에는 조선인을 만나면 목을 벤 뒤에 머리털을 깎아서 왜적의 머리라고 속여 상급을 타내는 악질들도 있었고, 민가에 들어가 약탈과 겁탈을 자행하는 자들도 대단히 많아 조선 백성들은 왜적보다 명군의 피해를 더 두려워해서 명군이 온다고 하면 도망가고 오히려 왜적을 더 낫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명나라 병졸뿐만 아니라 장수와 지휘부의 횡포에 조선의 민중과 조정 신료들도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골머리를 앓았으며, 민가에 숨어 백성을 괴롭히는 명군 탈영병의 문제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sup>28)</sup> 또한 명이 조선을 직

27) 간호윤, 앞의 책, 578쪽.

접 통치하려는 직할통치론이 제기되고 전쟁 기간 내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조선의 군신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며 명을 경계하였다.<sup>29)</sup>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 쇠락의 징후가 가속되던 명나라는 후금의 발흥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어 조선에 지원병을 끊임없이 독촉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다시 국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와중에 전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는 조선에 대해 명나라 관료와 사신들은 조선 백성들의 고혈이 다 마르도록 탐욕스럽게 뇌물을 착취해 갔다. 일례로, 1608년 4-7월에 방문한 명나라 사신 일행의 입에서조차 “이번에 유사가 귀국에서 얻은 것도 7만 금이니 귀국 백성의 고혈(膏血)이 말랐을 것이다.”<sup>30)</sup>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사신 접대를 담당했던 허균의 체험과 그에 따른 명나라에 대한 인식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위한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다.

황신이 아뢰기를, “책사의 소행은 사람의 이치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저 골짜기 같은 욕심을 다 충족시키기 어려우니, 저토록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애당초 곤란하고 군색한 상황을 보여주고 죽더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중략) 상이 이르기를, “책사가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왔으니 우리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야 된다. 경들이 잘 대처하라.”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성의와 예모는 걸치레이고 관건은 은의 수량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으니, 잘 대접하는 방법은 은의 수량을 더 준비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sup>31)</sup>

여기서 명나라 사신들은 무례하고 돈밖에 모르는 자들로 인식되고 있

28) 임진왜란을 전후한 명나라 지원군의 폐해에 관하여는 한명기의 앞의 책, 125-156쪽을 참고할 수 있다.

29) 위의 책, 61-67쪽.

30)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소부부고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9, 50쪽.

31) 『광해군일기』 권31 광해군 2년 7월 을사.

음을 볼 수 있다. 이항복을 비롯한 조선 조정신료들은 명나라 관료들의 탐욕에 진저리를 쳤고, 그에 소요되는 엄청난 양의 은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렴주구가 횡행하여 결국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다.<sup>32)</sup> 이 1610년의 광해군과 이항복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 사신에 대한 반감과 함께 中華에 대한 현실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다. 조위한은 광해군 1년인 1609년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등을 거쳐 1610년에는 예조정랑, 지제교로서 조정에 있었으며, 그 해 8월에는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방문하였다.<sup>33)</sup> 당시에 조위한은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의 횡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은 자명하며, 이항복과의 친분관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명나라의 책봉 반대에 부딪혀 왕위가 위태로웠던 광해군은 이미 임진왜란 당시 분조활동을 통한 항전과정에서 목도한 명군의 폐해와 명나라의 합병위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일종의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적으로 광해군은 정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참전 요구에 선불리 응할 수가 없었으며<sup>34)</sup>, 전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력을 기울여 북쪽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왜적의 재침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관념적이고 절대적인 화이관과 명분론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실적인 국제감각을 지닌 사대부들도 그에 동조하였다. 특히 조위한과 우애가 남달랐던 동생 조찬한이 1618년 명나라의 출병 요구에 대해 출병을 반대하는 광해군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외정책에 동조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sup>35)</sup>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中華와 夷로 이분하

32) 한명기, 앞의 책, 214-223쪽.

33) 민영대, 『趙緯韓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104쪽의 연보 참조.

34)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시아교역을 중심으로』, 해안, 1999, 35-36쪽.

35) 『광해군일기』 권127 광해군 10년 윤4월 갑신. 이때 왕이 징병을 요청해 온 일에

여 夷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화이론과 달리 후금의 흥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조건적·전략적으로 받아들여 국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광해군의 상대적 화이론<sup>36)</sup>이었다.

조위한은 책제(策題)에서 ‘산수와 인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지령인걸(地靈人傑)’과 ‘강산지조(江山之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한 바 있다.

山西에서 장수가 나고 山東에서 재상이 난다지만 將相이 될 인제는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이 나오니 이러한 이치가 또한 있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중략) 우리 조선은 산수가 빼어난 나라로 일컬어지고 강원도는 나라에서 가장 기이한 절경이다. 山으로 금강산은 華인이 보기를 원하는 곳이고, 水로 동명(東溟)은 일출과 월출이 천하의 가장 빼어난 장관이다. (중략) 마땅히 신령함을 빚어내고 정밀한 것을 내려 영웅과 호걸의 훌륭한 인재를 낳아야 할 것이다. (중략) 절대로 雄傑의 奇才나 뛰어난 문장이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인재의 성함은 오히려 영남이나 호남에 미치지 못한다. (중략) 그러므로 다만 강산지조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sup>37)</sup>

응하고 싶지 않아 누차 비국에 분부하여, 요동(遼東)·광령(廣寧)의 각 아문에 자문(咨文)을 보내 저지해 보도록 하였는데, 묘당에서 의견을 고집하며 따르지 않자 조정의 의논을 널리 거두라고 명한 것이었다. 이에 2품 이상이 아뢰면서 목소리를 합쳐 같은 내용으로 청하였으니, 비록 간사한 원흥(元興)이라 하더라도 대의(大義)를 범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윤휘(尹暉)가 앞장 서서 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황중윤(黃中允)·조찬한(趙縉韓)·이위경(李偉卿)·임연(任堯)의 무리는 왕의 의중을 탐색하여 아첨하려고 속임수로 가득 찬 도리에 어긋나는 말로 공공연히 헌의(獻議)하기까지 하였다.

36) 정우택은 절대적 사대관과 상대적 사대관, 절대적 화이론과 상대적 화이론을 비교하면서, 광해군이 ‘상대적 화이론’을 지녔다고 규정하였다.(정우택, 『광해군대 정치론의 분화와 개혁정책』,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75쪽.)

37) 趙縉韓, 앞의 책, 5-8쪽. 山西出將, 山東出相, 將相之才, 固無間於東西, 而亦有此理, 何歟. (중략) 惟我朝鮮, 號稱山水之邦, 而江原一道, 爲一國之奇絕, 山則金剛而華人願見, 水則東溟而日月所出, 此天下最勝之壯觀. (중략) 宜其釀靈降精, 孕出豪英瑰偉之才. (중략) 絕不聞雄傑之奇才, 卓犖之文章, 而人才之盛, 返有愧於嶺之南湖之右. (중략) 而不但全責於江山之助, 其道何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령인걸이란 산천이 수려하고 지세가 빼어나면 그 땅의 기운을 타고 걸출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설이며, 강산지조는 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이 사람의 시정(詩情)을 돕는다는 설이다. 이 글에서 그는 山西에서 장수가 나고 山東에서 재상이 난다고 하지만 장상(將相)이 될 인제는 동서의 구분이 없이 나오니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조선은 산수가 빼어난 나라로 일컬어지는데 강원도는 나라에서 가장 기이한 절경이요, 山으로 금강산은 중국사람들이 보기를 소원하는 곳이고, 水로는 일출과 월출의 동명(東溟)을 천하에 가장 빼어난 장관으로 꼽으므로 강원도에 걸출한 인재가 나와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타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문장도 논할 바가 못 되니 전적으로 강산지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질문의 기저에는 조위한의 상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본래 명나라를 방문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중국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이미 불행이라 하겠는데, 하물며 행로의 수고로움으로 위대하고 장려한 구경을 폐할 것인가? 이는 우물 안 개구리의 소견과 무엇이 다르겠는가?”<sup>38)</sup>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산수를 흠모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1609년 조정에 들어가서 중국사신들의 횡포를 목도한 데 이어 1610년 사행(使行)으로 직접 중국을 다녀오고 또 사신들과 교류한 이후에는 위의 책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의 산수를 천하제일로 꼽으면서 중국인들이 동경하는 명승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將相之才는 동서의 구분이 없이 나고, 강산이 빼어나더라도 반드시 인재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상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에 이르렀다. 책체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최척전>의 상대적인 대외인식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둘 때, <최척전>에서 왜구가 아닌 ‘명나라

3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소부부고 Ⅱ』, 민족문화추진회, 1989, 67쪽.

해적'이라는 설정 역시 상대적 화이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명나라 해적과의 조우사건은 이미 앞에서 인용했기에 여기에 다시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최부의 표류체험 기록과 매우 흡사하다. 옥영 일행이 겪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최부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표류하던 배가 겨우 정박했을 때 명나라 사람들이 점잖은 척 접근했다가 갑자기 해적으로 돌변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포악하게 구타한 후 배를 망가뜨려서 다시 사지로 내몰리는 만행을 겪었다.<sup>39)</sup> 『표해록』에서 최부는 명나라의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도적의 횡행, 윤리기강의 해이, 오랑캐 습속 만연 등 명나라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세부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고, 그에 대비되는 자신(자기정체성으로서의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자부하기도 했다. 1569년 간행 보급되면서 널리 알려진 최부의 『표해록』은 당시 지식인들이 명나라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조위한과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직접 명나라 사람들을 목도하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명나라 해적이라는 설정은 사실적(寫實的)이기도 하지만 명에 대한 피상적이고 절대적인 중화관념에서 탈피한, 작가의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화이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위한은 조정에서의 관직생활과 중국사행 등 실제적인 현실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동생 조찬한을 비롯한 이항복, 허균, 강항, 권필 등 친밀하게 교류하던 교유집단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관념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국제감각과 대외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현실적인 대외인식은 <최척전>에서 야만적으로 살육을 일삼는 왜적뿐 아니라 왜병 돈우나 늙은 호인과 같이 夷 안에도 華人 못지않은 성정(性情)과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섞여 있고, 中華 안에도 여유문이나 주우 같은 선인뿐 아니라 야만적인 해적도 섞여 있음을 보여준 것에서 간취할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의 외국인형상에서

39) 최부, 박원호 역, 『최부 표해록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53-57쪽.

드러나는 이같은 대외인식은 작가 조위한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한 상대적 화이관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 4. 결론

<최척전>의 창작시점은 조선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는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고, 전후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남쪽 왜적의 재침입을 저지해야 했고, 북쪽 후금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는 기미책(羈縻策)을 구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명이 몰락의 길로 치달아 회생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선에 병력과 물자지원을 독촉해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분상 출병은 했지만 조명연합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명은 더욱 조선에 매달리며 압박했다. 국내 사정도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몰락하고 있는 명을 돕다가는 공멸할 것이 명약관화한 형국이었으나 명을 중심으로 한 화이관념과 재조지은이라는 굴레에 묶여 조선 조정은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국가의 생존을 앞세우며 실리를 추구한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고답적 화이관에 간혀있는 신료들의 거센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조위한의 동생 조찬한은 출병을 반대하며 광해군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 조위한이 <최척전>을 통해 그려낸 대외인식은 그 당시 조선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심상치 않다. 화와 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시각은 관념성을 탈피한 현실적·상대적 인식이며, 국제정세의 변화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확하게 읽어낸 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위한은 당시 고답적인 화이관념의 잘못된 틀을 넘어서서 夷도 교화가



가능하고 華에도 야만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화이관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선이 미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작가의식을 이 작품에 녹여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위한은 이 작품을 통해 고답적인 화이관념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대외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창작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한 대외정책에 대한 대안을 언외지의(言外之意)의 방식으로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제관계나 대외정책을 이 작품의 궁극적인 관심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작품의 창작 당시 조선사회가 지니고 있던 시대적 과제도 대외인식에 기반한 대외정책만이 아니었다. 당시의 최대 과제는 전후 수습과 중흥의 방도를 물은 광해군 1년(1609)의 책제에서 알 수 있는 바 국가사회의 안정과 번영이었다. 대외정책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일 따름이다. 따라서 대외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정치와 국가의 안녕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선 내부의 정치와 사회에 관한 인식이 이 작품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회인식이 규명되어야만 이 작품에 드러난 대외인식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논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지면 관계로 후속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간호윤, 『先賢遺音』, 이회, 2003.
- 권필, 정민 역, 『석주집』, 대학사, 2009.
-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김영철전」,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165-192쪽.
-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이삼국교역을 중심으로』, 해안, 1999.
-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75-100쪽.
- 민영대, 『趙緯韓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84.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9.
- 신선희, 「전란이 낳은 이방인의 삶-최척전」, 『장안논총』 33, 장안대학교, 2012, 1553-1572쪽.
- 유몽인, 신익철·이형대·조유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11.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항복, 임정기 역, 『국역 백사집 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정규식, 「최척전에 형상화된 주변인물의 특징과 작가 의식」, 『어문론총』 64 한국문학언어학회, 157-186쪽.
- 정우택, 「광해군대 정치론의 분화와 개혁정책」,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趙緯韓, 『玄谷集』(한국역대문집총서 1790), 한국문집편찬위원회, 1999.
-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쪽.
- 최부, 박원호 역, 『최부 표해록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최빛나라, 「최척전의 탈국가적 면모와 그 의미」,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구』 16(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7, 55-79쪽.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9-224쪽.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 The external perception of <Choi Cheok Jeon>

Shin, Tae-Soo\*

This thesis analyzes the description of foreign nationals in <Choi Cheok Jeon>(1621) to identify the external perception of the appearances of foreign nationals and the significance of such perception. Unlike preceding studies that only addressed the positive aspects of foreign appearances, this study addresse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xternal perception of this work.

First, the foreign nationals that appear in the work were categorized by nationality and their actions were summarized.

Next, the perceptions towards We(倭) and Hujung(後金) which correspond to Yi(夷)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Hwa Yi(華夷), and the perception of Ming(明) that correspond to Hwa(華) was reviewed. The findings showed first, the perception of We(倭) where they were not only seen as the greatest enemy on earth, second the perception of Hu Geum where they were not seen just as barbarians, and third, a perception of Ming that did not lean towards Jae-Jo-Ji-Eun(再造之恩) or Mohwa(慕華).

Lastly, it was proven that such perception reflects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s in general based on

---

\* Hannam University.

the worries of the author Wihan Cho who was an aristocrat at the time. Based on hi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experience with war, Cho moved away from a stereotypical concept of Hwa Yi to take on a more realistic perspective, and presented the optimal direction for foreign policy that Josun society should take as it was at a cross-roads between survival and collapse. Such a view are expressed between the lines.

Key Words : foreigner imagery, external perception, Hwa Yi concept, Ming(明), Hyeum(後金), We(倭), Jae-Jo-Ji-Eun(再造之恩), Mohwa(慕華), Wihan Cho, <Choi Cheok Jeon>

- 논문접수 : 2019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3일
- 게재확정 : 2019년 4월 12일

